

##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본 지역경제 활성화

대전광역시장 입장에서 본 지역경제활성화

염 흥 철 / 대전광역시 시장

### I. 세계환경의 변화와 지역의 대응

21세기는 지식의 창출과 축적, 나아가 이의 활용 능력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지식 기반 사회로 지식은 부의 창출과 경제발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개방화·세계화를 가속화시키면서 국가 간, 지역 간 무한 경쟁을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

로써 지식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세방화(globalization)」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 날 지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 II.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제 발전전략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났다. 많

은 부문에서 지방의 논리, 지방의 가치가 어느 정도 정립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의 성패가 지역경제의 사활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지역경제 정책에도 분권화시대에 맞는 지역 나름대로 독자적인 행동양식이 필요한 때다.

이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지식기반 경제 시대에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혁신을 추구하는 내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현재 모습과 역사적 배경은 물론 인적·자연의 잠재력과 제약요소까지도 도출해 내면서 여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장래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의 생산, 축적,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의 정비, 쾌적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창출, 우수한 인적자본의 양성 및 분권적·상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고려하여 지역산업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하고 지역의 비교우위의 자원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 부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며 점차 관련 분야로 다각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역간 협력과 제휴로 전문화된 지역경제가 상호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동참자로서 참여하여 아이디어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민간기업들이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 발전정책의 실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 스스로가 주체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는 그것을 지원하면서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는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Ⅲ. 대전경제의 위상 정립과 발전잠재력

대전은 1900년대 초 근대 도시로 첫 출발을 시작한 이래, 술한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지금은 중부권의 성장 거점도시로서 성장 발전했다.

특히 단순 소비중심에서 벤처와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국제교류의 증가, 지방자치의 정착 등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결과, 도시의 정체성이 확립되었고 대내외적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또한 정부대전청사의 입주와 우리나라 과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과 과학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21세기에 진전될 국내외의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미래의 바람직한 발전상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구현해 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

특히 대전은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대덕연구단지, KAIST, 특허청이 위치한 과학기술도시로서 R&D기반이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로, 철도 뿐만 아니라 인근 청주국제공항, 군산항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데다 최근 경부고속철도 및 「대전-진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대전이 갖고 있는 더 없이 좋은 성장 여건이 아닐 수 없다.

#### IV. 대전경제의 발전방향

대전은 이러한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난 30년 간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을 축적해 온 대덕연구단지의 원천기술 산업화를 목표로 IT, BT, NT, 신소재, 정밀화학, 영상산업 등 신산업을 중점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21세기형 신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대도시 여건에도 잘 맞는 컨벤션, 관광, 영상, 게임, 이벤트산업 등 새로운 3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첨단문화산업 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 지원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자금과 기술, 판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벤처기업 하

에 더 없이 좋은 도시로 가꾸는 한편, 신산업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요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신·구 산업의 조화와 균형 발전도 유지할 계획이다.

### V. 대전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 1. 대덕밸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육성

대덕밸리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덕연구단지 연구 성과물들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하이테크 벤처 집적지로서 연구단지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세계적인 벤처밸리로 도약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덕밸리를 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이상적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기본 목표로 대덕연구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력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고자 관련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어 왔다.

대덕연구단지와 테크노밸리, 엑스포과학공원, 둔산행정 타운, 유성관광특구 등 권역별 육성 전략을 수립 시행하면서, 벤처기업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바이오 벤처타운, 고주파 부품사업 지원센터, 지능로봇사업화 지원센터 등 생산공간 집적시설은 물론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 대덕밸리 상설 테크노마트 등 지원시설도 건립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1세기형 첨단 기술로서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IT·BT·NT 등 신기술 진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관련 벤처기업 육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의 나노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KAIST, ICU(한국정보통신대학교)등 인력 양성이 용이한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현재 집중 육성 중인 신산업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9년간 3천억원을 투입하여 KAIST에 나노 Fab 센터를 설치하고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인 인프라와 대덕테크노벨리를 연결하는 나노벨트를 구축하여 나노기술의 생산화를 위한 나노실용화 센터 및 대덕 테크노벨리내 나노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대덕밸리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 Business Zone의 조성,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 2.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대덕연구단지의 원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은 유성구 관평동 일대 총 128만평 부지 위에 6,345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 생산, 교육, 및 레저 등이 어우러진 첨단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방식은 지금까지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제3섹터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이미 대전광역시, (주)

한화,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다.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KMCC(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 의뢰결과 공공성과 사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 사업을 7년간 5단계에 걸쳐 개발하게 된다.

2001. 9월부터 우선 1단계(26만평)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상 97%에 산업용지 분양 100%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단계 이후 사업도 조기 착수가 가능하며 이렇게 된다면 전체 개발계획도 훨씬 단축되리라는 희망 어린 전망을 해 본다.

어쨌든 2007년을 목표로 한창 조성 중에 있는 대덕테크노벨리는 향후 대덕밸리의 핵심 축으로 대전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1,00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함으로써 2만 명의 신규 고용효과와 년 1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세계적인 「스타 벤처기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산·학·연이 잘 조화되는 테크노폴리스의 중심, 미래형 하이테크산업의 집산지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고부가가치 신 3차산업 육성

우리 시는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타지역에 비해 서비스 산업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도·소매, 숙박업 등 주로 소비성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지역 경제를 리드해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게임·회의·패션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각광받는 신3차 산업을 발굴, 서비스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특화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엑스포과학공원, 대덕연구단지, 둔산문에 공원, 유성관광특구 등 문화산업을 이끌 주변 여건을 잘 활용하면서 멀티미디어 관련 연구소(5개)와 IT관련 기업(300여개) 등 영상산업 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엑스포과학공원에 10만평 규모의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2006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영상·게임·캐릭터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고부가산업 집적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 등 국제규모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정·과학연구군사」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의 회의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진흥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어뮤즈타운으로 자리잡은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인근의 덕명 지구 승마장 주변에 꽃 단지를 조성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발굴하면서, 무주 스키장과 부여, 공주의 백제 관광권을 함께 묶는 테마형 관광코스도 개발하여 특화시킬 예정이다.

#### 4. 전통의 향토산업 지원 및 기존 도심 경쟁력 회복

21세기 지식·정보산업 시대, 기존의 전

통산업은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대전의 향토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식·정보화를 통한 역량의 배양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TJ - Mart의 확대·개편, 대량 구매 상품의 마케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B2B몰 구성」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신 업종의 증가와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VI. 맺음말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지역 경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무엇보다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정책사업들이 아직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이상이 각 지역이 주체가 되어 개성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지역 간 균형 유지라는 논리를 앞세워 획일적이고 하향 일변도의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시대 전통화 된 중앙집권적 개발방식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지역이 가진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다.

또한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그간 지방화를 통해 다져진 공동체 의식과 자립의지, 그리고 서로의 경쟁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의 기

주적이며 상향적인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야 하겠다.

그리하여 지역 중심의 개발이 강화되어 지방자치의 참 뜻을 구현해 내면서 이를 통해 총체적인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전라남도 지사 입장에서 본 지역경제활성화

박 태 영 / 전라남도 지사

### I. 21세기의 의미와 특징

21세기를 흔히들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라고 한다.

세계화시대란 국제경제 질서가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경이 없어지고 무한경쟁시대의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기업들의 초국적화는 더욱 빨리 진행되고 글로벌(global) 경영체제를 갖춘 기업들은 조직을 고도로 분화시켜 경쟁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들고 있다.

이들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곳의 투자매력이다. 그 동안 국가의 보호아래 국경안에서 안주해 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전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자유경쟁에 뛰어들 것을 요구본 원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투자매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중앙집권적, 관료적 조직경정보다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에 바탕을 둔 분권적, 자율적 조직경영을 요구하며 지방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분권화, 자율화에 의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부문에 기업가 정신과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가형 지방경영」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내부행정의 효율화를 토대로 주민들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원칙을 도입하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생활부터 운택하게 해 줘야 하며, 그러자면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경제는 지방주민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젖줄이고 주민활동을 지속시키는 원천인 동시에 주민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경제가 활발할 때 그 지방주민의 생활은 여유있게 되고, 주민활동이 활발할 때 그 지방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는 필요하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여 전 국토의 기능적 공간체계를 안정화하고 지역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세계화,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의 창의성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 II. 전남경제의 현실

우리 전남지역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지역이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4%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낮고, 22개 시군

중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이 못 살게 된 주원인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은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 위주로 개편되어 갔으나 전남은 생산성이 낮은 농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데 있다.

작년말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4.5%로 전국 평균 8.5%의 4배인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9.3%로 전국 19.9%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생산액도 광양제철,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장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소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1인당 민간소비지출이 5,586천원(2000년말, 통계청)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다수 젊은이들은 소득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시골에는 대부분 노인들만 사는 지역이 되었다.

지난 70년대 4백만의 인구가 작년말 현재 210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최근 10년간 전국인구는 10%정도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인구는 10%정도 감소하여 매년 2만5천명이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 10년 후에는 150만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현실이 반영되어 붙여진 수석어가 “가장 가난한 道”,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道”, “청정지역”, “미래의 개발

을 위해 아껴놓은 땅”, “農道”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미래의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젊은이들이 머무르고 찾아들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을 올려주는 일이 도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 Ⅲ.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정의 역점시책

민선 3기 도지사로서 출마하면서 지역민들이 가장 염원하고 있는 것이 “잘사는 고장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선거공약을 「우선, 경제부터 살리겠습니다」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려내라는 준엄한 요구를 어떻게 하여 이룩할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4년간 도정부 운영 목표를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 실현」에 두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정의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3대 전략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첫 번째가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전남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대불산단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광양만권 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결과 대불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확실히 되고 있다.

경제특구도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SOC확충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최근들어 유리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발전의 호기를 살려 나가기 위해 금년중 구체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여 내년 상반기중 서울에서 국내외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미국, 일본,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잠재투자자를 조사 발굴하여 초청 또는 직접방문(Company Visit)을 통한 Man to Man식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SOC, 관광, 물류, 유통 분야 등에 대해서도 수익성 있는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정착에 노력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노력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이다.

관광산업은 21세기 성장산업의 하나로서 고용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도 높아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광 산업 육성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전남은 비교적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전국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섬과 이와 어우러진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저개발로 인해 쾌적한 환경 등을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현장에서 채취·가공할 수 있는 매력이 잠재된 곳이다.

찾아오는 관광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통편과 숙박시설 등이 다소 부실하나 시·서·화·창의 본향이요 맛의 고장으로 지역인지도가 높다. 앞으로 관광의 패턴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의 충족되는 가족형, 체류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는 관광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저가형 숙박시설에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내놓고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숙박난을 덜기 위해 기존의 저가형인 민박과 중간급인 펜션(식사를 공급하는 고급 민박)을 크게 확충하고 있다.

앞으로 주말 골프인구 유치를 위한 골프장 건설, 이웃 일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는 농수산물의 판로개척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도는 농도로서 주민의

28%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이 농가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WTO협상이 타결되어 쌀을 수입해야 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중국 쌀값보다 5~6배가 비싸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대체 작목을 발굴하고 품질·가격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대비해서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마케팅에 힘쓰면서, 이제는 생산보다는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도가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판매시장도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판로를 찾기 위해 일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대만·홍콩·중국·미국 등의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수산물의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도정 모든 분야의 업무를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지원해 주는 체제로 이끌어 가고 있다.

#### IV. 맺음말

도지사가 “경제살리기”를 강조한다고 해서 일조일석에 전남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힘만으로도 불가능하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야 한다.

특히 투자유치의 선결조건으로 노사평화

의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럽에서 가장 못 살았던 아일랜드는 노사 간에 산업평화 체계가 확립돼 이제는 영국보다 잘 산다.

반면 60년대 세계 6대 강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산업평화를 이루지 못해 오늘날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다. 대조적인 두 나라의 사례는 반면교사로서 전남이 나아가야 할 바를 시사해 주고 있다.

내놓고 사랑할 만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거의 없고 투자여건도 좋지 않은 지역에 노사갈등이 계속된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지역에 투자하려 할 것인가?

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평화를 정착시킨다면 전남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우리 지역의 앞날을 위해 고뇌하면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 나아간다면 못이룰 꿈도 아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전남경제를 살려 최소한 우리 도민이 전국 평균수준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껴본다.☺

## 부천시장 입장에서 본 지역경제활성화

원 혜 영 / 부천시 시장

부천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9,400여개 중소기업들이 입주하여 있는 공업도시로써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전국을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20~30대 젊은층이 70%와 대졸이상 고학력자가 40%가 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되어 있는 도시이다.

우리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해가 많은 도시라고 수식어 따라 다닐 만큼 그리 노사 모두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를 생

좋지 않게 인식되었던 도시였으나 부천국제영화제 개최, 만화산업 육성, 박물관 건립 등 문화산업 육성에 힘입어 공해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자부하며 이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부천테크노파크 건립과 성공적인 분양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바 있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2차 테크노파크도 건립되기도 전에 모두 분양되는 등 그 만큼 기업하

기 좋은 부천의 공업입지를 대변해 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시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소형정밀모터, 센서, 계측기기, 금형, 디자인 등의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R&D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집적화시설 확보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문화산업단지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지인 Digital Art Hive를 부천에 유치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런 반면에 우리시 산업구조는 금형과 조명산업 같은 소규모 영세한 기업들이 다수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써 이들 업종들이 과거 우리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던 기업들로 그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지역내 기반기술의 초석을 다져가며 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전통산업으로 스스로 노력으로는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만 지원해주어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인 만큼 이들 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민선3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는 금형산업 육성시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금형”이라 함은 가전제품, 운송기계, 생활용품 등 모든 공산품 생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생산기술분야로 제품의 정밀도와 품질수준을 결정짓는 고부가

가치 지식기반 산업이나 한동안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에 밀려 기존의 전통산업 육성을 소홀히 했던 적도 있었다.

우리시는 이러한 전통산업을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초미세기술) 등 신산업과 접목시켜 육성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은 물론 지역내 산업전반에 고도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2000년말부터 육성하기 시작했다.

2000년말 기준 5인 이상 금형업체는 전국 2,290업체 32,388명으로 업체당 평균 14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중 부천지역에는 267업체 2,986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국의 12%, 경기도의 33%를 분포하고 있을 만큼 금형의 밀집지역으로 1인 이상은 무려 1,000여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금형의 도시이기도 하다.

금형은 타 업종에 비하여 부가가치 비율이 70% 이상이며 외화가득률 또한 100%에 가까운 업종으로 자동차 수출로 얻어지는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2000년도 5억5천만불의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최근 산업의 발달로 금형산업의 제조공정은 자동화, 기계화 되어가고 있으나 부천지역 대부분의 금형업체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부품생산위주 저부가가치 노동집약형 생산구조아래 이직율마저 높아 기술자 확보와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생산관리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화되고 있는 시점에 금형의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신홍공업

국인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 금형업계는 선진국과 후발 경쟁국 사이에서 설자리 마저 잃고 있다는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은바 있다.

그렇지만 부천은 기계장비, 조립금속, 전기전자, 고무, 플라스틱 등 금형 관련산업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 어느 지역보다 기능인력 확보와 부품 공급체계가 잘 갖추어진 도시이며 부평, 주안, 남동, 시화, 안산, 영등포, 구로 등 금형산업이 대체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우수성을 지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금형산업의 특성상 어느 업종보다 창업이 용이한 분야로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이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고정자산과 인건비 투자가 높은 업종인 반면 부가가치는 매우 높은 업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금형산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1. 4월에 부천시금형산업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금형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5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되는 등 부천의 금형산업 육성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점차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틈새산업 육성시책의 하나로 우리나라

의 전통산업인 금형을 고도화시켜 나가고자 지원 첫해인 지난해 지방교부세 17억원을 지원해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바 있으며, 우리시 또한 금형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금형기술지원센터 유치에 필요한 건물구입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금형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2005년까지 기반시설과 다양한 지원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약 2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금형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시는 금형산업의 육성을 위해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기업 독자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장비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에게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기업 스스로가 자생력 키울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체제로 지원하고자 하며, 각종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하여 금형업체가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현장기술자 확보 문제를 비롯한 설계, 측정, 검사, 가공 등이 한지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난해 6월 산하 연구기관인 금형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는데 결실을 맺게되었다.

이는 자치단체로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기능을 유치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시가 공

간과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고가의 장비를 부천시로 이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기술지원 업무를 시작하게되어 금형업체가 그 동안 겪고 있던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금형기술지원센터를 부천에 유치함으로써 금형분야 기술자 양성은 물론 재교육을 담당하고 그 동안 타 지역을 이용하던 측정검사를 관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는 계기를 부여하였으며 보다 쉽게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연구개발지원이나 신기술 보급이 어느 지역보다 용이한 시스템을 갖추어 업계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금형기술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학교나 연구기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희장비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고가 장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게 하는 등 금형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말까지 조성 예정인 부천금형집적화단지내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갖춘 금형지원센터가 건립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니고 있는 나머지 고가의 측정·검사·가공 등 지원장비를 부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천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금형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형업체는 업계 스스로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부천금형사업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설립된지 1년만에 140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시와 지원센터, 금형조합 삼위일체를 이루고 공조체제를 갖추으로써 업종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금형분야 관련 교수, 전문가, 업계, 시의원, 지역상의, 변호사,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부천시금형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고, 구성예정인 금형학회도 부천에 본부를 두기로 계획하고 있는 등 기술지원기관, 학계, 업계, 금형관련 동아리 등 각계 각층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혼자만으로는 어려운 여건에 처하여 있는 전통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모두가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천시는 2005년말 목표로 금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부천 오정기술산업단지내 약 4만평을 금형집적화단지(Korea Mold & Die Valley)를 조성하여 정밀금형 또는 특수금형을 생산하는 완제품 업체는 물론 금형의 생산원가를 좌우하는 분야별 부품 임가공업체와 교육·기술·측정·검사 등의 지원기능과 무역상담,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단지내 약 200여 업체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금형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부천의 금형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금년을 원년으로 부천금형축제

(BMF: Bucheon Mold & Die Festival)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의 산업축제 행사로 발전시켜 문화축제와 공존시켜 나가고 앞으로 금형집적화 단지가 완료될 경우 세계적인 금형박람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시 핵심제조업이며 지역특화품목인 금형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금형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력산업으로 특화 육성시켜 나가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조업의 기반기술인 금형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앞으로 부천시는 금형산업과 더불어 2003년부터는 지역의 핵심제조업인 조명산업도 육성해 나가는 등 전통산업의 고도화로 선진국은 물론 후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틈새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